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화담론의 가능성과 전망*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을 중심으로-

박희영**

hyp0723@hanmail.net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일본의 지역주의 공동체구상의 흐름과 전개
- III. 동아시아 공동체 인식과 그 대안으로서 문화공동체
- IV. 나가며-일본의 역할 가능성과 전망

I. 들어가며

냉전질서의 하나의 커다란 축이었던 소련이 1991년 연방 해체와 더불어 전 세계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변혁의 질서와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수면 하에 잠자고 있었던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지역주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히 진행되어 가며, 그 논의의 중심은 주로 경제공동체라는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미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세계화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6A3A02033580).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질 시대적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일본은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성격적인 면에서 다른 동아시아공동체란 형태의 지역주의 공동체를 주목하며 새롭게 동아시아지역을 공동체 단위로 묶으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를 통하여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일본의 지역주의 공동체 전략으로 내세워지며 공식적인 선포를 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전의 동남아 위주의 지역주의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그 공동체에 대한 지역주의적 움직임을 한층 확장시키며 기존의 대미 외교의 보다 철저한 강화라는 정책기조와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며 그들의 실리를 챙기려고 하고 있다.²⁾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신지역주의적 공동체 움직임이 이전에 시도되었던 APEC의 실패나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험에 기인하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SEAN의 역내 지역주의 형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최근 급속하게 그 세를 늘리며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기존과는 다른 힘의 역학구조의 변화 상황과 그 시기가 상충하고 있다는 시대적 상황에 일정부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³⁾

본고는 최근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이 그 제국주의적 정신이 충만하던 전전시대의 대아시아주의에 입각한 지역적 공동체 구상들부터 2001년부터 언급하기 시작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세웠던 동아시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일본 그들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들이 갖고 있는 지역주의 공동체 구상들의 구조와 그것들의 허와 실, 한계성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공동체 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체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과거에 답습되어 왔던 일본의

1) 박희영(2014), 「지역주의 문화담론의 확장 그 한계-한, 중, 일의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 근대학연구 제4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71-272.

2) 와다하루키, 이원덕 역(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pp.82-83 참조.

3) 조정원(2009),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대동아공영권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475-476.

지역주의 공동체의 흔적을 되돌아보고서, 이를 통해 현재 일본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공동체전략을 비추어 일본의 지역주의 공동체 정책의 실질적인 의도를 파악하여 그 가능성, 나아가서는 수정과 보완을 통한 또 다른 새로운 지역주의 공동체의 출현의 전망까지를 하는 것을 본고의 두 번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일본이 내세우는 그들의 구상의 한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고의 세 번째 목적으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담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간의 실질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지역주의 공동체구상의 흐름과 전개

본장에서는 일본이 지난 세기부터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 정신을 이어온 지역주의 공동체의 과거로부터의 오늘날까지의 움직임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전까지는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에서 비롯한 다양한 그들의 전략적인 지역주의 공동체 전략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어지는 동아신질서, 동아협동체론, 그리고 대동아공영권 등의 이러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공동체 구상들은 패전과 더불어서 실패로 끝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둘 필요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닌 냉철한 인식 속에서의 재고가 있어야 만이 작금의 21세기 일본이 전략적으로 내세우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아시아연대론에서 대동아공영권까지⁴⁾

일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아시아주의적 공동체 연대의 발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은 탈아론적 발상이 더욱 강하였고 또한 이것이 더욱 이상적으로 추구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대동아공영권 등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전후 이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반발과 의구심은 지역주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자체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일본 발신의 논의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지역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라는 생각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범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최소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기존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도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아시아연대론(대아시아주의)이 있다. 아시아연대론이란 서세동점이라는 서양의 압력으로부터 아시아의 독립을 유지하고 동아시아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긴밀한 연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3국은 서구의 위협 앞에서 일종의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피압박적 상황에 있는 민족으로서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이를 보강한 것은 지리적 근접성과 같은 문화권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중국과 한국은 물론 인도와 필리핀 등의 주변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아시아연대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직후에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 논쟁이 있었는데 정한론에 대한 반대파도 조선 정벌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방법에 대한

4) 본절은 오명석 외(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pp.16-21의 내용을 참조하여 본고의 흐름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인용, 정리하였다.

의견이 다른 것에 불과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진로와 관련하여 중국과 조선을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인이라는 의미의 동종동문으로 간주하면서 중국과 일본과 조선이 연합하여 서구에 대항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탈아론이 우세하였다고 한다.

탈아론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1885년 3월 15일 時事新報의 사설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하여 문명개화로서 식민지화를 저지하고 조선과 중국 등 야만적인 동아시아의 나쁜 친구들과 결별하고 오히려 분할에도 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청일전쟁은 문명진보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전쟁이라 주장되었으며, 탈아론은 이후 일본인의 주변 여러 국가들에 대한 대국적식과 멸시의 시선을 형성하였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에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속에서 미국을 추종하는 노선을 걸으면서 또 다시 탈아시아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남진에 대항한다는 조선책략의 논의는 중국과 조선에서는 관심을 모았으나 일본에서는 그리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중국과 조선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일본은 일부 우익세력을 제외하고는 동양이 힘을 합쳐서 서양에 맞선다는 구상에 무관심하였으며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중국에서 세력을 부식하고 이권을 확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아시아연대론은 일본이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그 세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제창한 아시아연대라는 이상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고 한다. 일본 국가는 탈아론의 노선에 따라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에 진출하려 시도하고 있었으나 일부 일본의 우익은 여전히 동문동종의 입장에서 서구에 대항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협력의 주도권은 일본이 행사하는 것이었으나,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 또한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당연시하고 있었다.

일본은 서구보다도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동양의 국가로서 서구의 것을 재빨리 받아들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손문이나 김옥균 등이 일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일본의 이러한 세력들과 연계를 가졌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일부 우익들은 식민지화의 위기에 있는 중국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동아동문회를 결성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동아동문회는 동아회와 동문회가 합병하여 1898년 11월에 설립된 흥아단체로서 이들은 정부의 원조아래 기관지 東亞時論등을 발행하였으며 난징에서 同文書院(1901년 상해로 옮겨 동아동문서원)을 경영하였다. 동아동문서원은 일중협력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1901년에 중국 상해에 개설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그 후에도 종종 나타났는데, 1930년대에 나타난 동아협동체, 동아연맹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동아연맹은 중일전쟁 기간에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가 주창하였던 일중 제휴의 이념이다. 중일전쟁의 확대에 반대하였던 이시하라는 1938년 말에 국방의 공동, 경제의 일체화, 정치의 독립을 조건으로 일, 만, 중의 제휴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왕조명의 난징정부가 호응하여 1939년에는 동아연맹협회가 설립하였으며, 만주국협화회 계열과 동방회 계열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세계최종전쟁을 강조하는 이시하라파에 반발하였던 동방회 계열이 탈퇴하였으며 1941년에 일본정부는 동아연맹론을 금지하였다.

이것 역시 위기적 상황에서 태동한 것으로서 19세기말의 위기가 서양체제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태동된 것이라면 1930년대의 위기는 서양화의 모순과 서양으로부터의 고립에서 태동한 것이었다. 이는 서양의 자본주의와 의회주의를 극복한다, 즉 근대를 초극한다는 것을 표방하였으며 당대의 위기를 '동양 對 서양의 위기'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키 기요시(三木清) 등 당대의 일류 지식인들도 改造나 中央公論 등의 잡지를 통하여 철학적,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사회학자인 다카다 야스마(高田保馬)의 '동아민족론'(東亞民族論) 등도 일종의 공동체 발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큰 영향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유명한 것은 동남아까지 포괄하는 원대한 구상인 대동아공영권이다.

대동아공영권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구상하여 그 실현을 정치 슬로건화로서 내외에 주창했던 일본의 주도에 의한 동아시아 신질서를 의미한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용어는 1940년 8월경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 범위는 일본 본국과 그 식민지를 중심으로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기에 침략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추가한 영역을 지칭하지만, 장래의 목표로서는 극동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이 대

동아전쟁을 태평양전쟁의 공식호칭으로 하였던 까닭에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이 일본의 전쟁목적인 것처럼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진의는 권역 내에서 자신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및 점령지 지배의 가혹하고 잔학한 현실 때문에 ‘공영’이란 미사여구에 불과하였고 대외적인 슬로건으로서의 기능도 급속히 붕괴하였다.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이 슬로건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 따라 대동아회의(大東亞會議)가 개최되었다. 대동아회의는 태평양전쟁 중 점령지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내각이 개최한 회의로서 1943년 11월 5일에서 6일 간 동경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일본, 만주국, 중국의 왕조명 정부 등의 점령지역 정권의 대표들이었다. 회의는 공존공영, 독립존중, 호혜제휴 등 5개 원칙을 내용으로 한 ‘대동아공동선언’을 채택했으나 독립존중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1945년 4월에 제2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황의 악화로 중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동아협동체의 제안은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서 일본, 만주국, 중국이 통합하여 서구제국주의에 대결할 수 있는 지역적 운명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적 협력에 의한 국방과 경제체제의 건설을 시도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침략전쟁인 중일전쟁조차도 동양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당화하였고 동양의 항구적 평화의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 선전하였다.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이를 미화한 대동아공영권의 유산은 전후에도 일본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고도성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보수 세력들이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꿈꾸고 있다는 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미명 아래 군대의 재무장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대동아공영권을 내밀하게 획책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위대는 군대의 창설을 불허하는 전후의 평화헌법에 비추어 위헌이지만 보통국가로 지향하는 가운데 이제는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 파병되고 있으며 국방비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일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론 이외에 동북아공동체론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냉전의 종식, 세계화 속에서의 지역화, EU, NAFTA 등의 지역공동체의 등장, 서구 중심의 근대성에 대한 회의 등에서 비롯된 아시아에 대한 관심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일본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의 변화, 아시아의 위상, 또한 90년대를 보내면서 일본이 직면한 위기의식 등이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이 주창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현주소

21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여전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각국들과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지역주의의 많은 지표들에서 급격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 도쿄대의 이노구치 다카시 교수는 대규모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며 동북아국가 간 연계가 기대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02년 1월 고이즈미 수상은 일본의 대 ASEAN 정책연설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하였다. 즉, 일본과 ASEAN과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ASEAN+3의 틀에 호주 뉴질랜드를 더하여 동아시아를 '함께 걷고, 함께 나가는 커뮤니티'로 하자는 내용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2003년 가을의 ASEAN+3와 APEC회의에서 중국과 인도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고이즈미는 2003년 12월에 ASEAN의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기 위해 서둘렀고, '동아시아공동체'를 도쿄선언의 한 부분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2004년 6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고위 실무급회의에서 이슈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있다. 먼저 일본은 기능적 접근을 내걸고 있다. 이는 현재 역내의 현실적 여건이라 할 국가 간 경쟁 및 민족주의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적 접근이나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꾀하는 노력은 오히려 국가간의 알력과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⁵⁾ FTA, 금융, 환경,

5) 하영선 편(2008),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pp.180-181

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부문에서 기능적 영역의 협력을 심화해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고수준의 통합적 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능적 접근의 차원, 특히 경제의 차원에서 볼 때 지역의 범위는 동북아 및 동남아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괄하는 대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괄하는 지역구상은 이미 2002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오고 있으나, 2004년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국을 추가하는 지역안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세 국가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더하여 중국의 부상에 의해 ASEAN의 영향력이 저하되는 현실을 우려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멤버십 확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 3국의 참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위는 ASEAN+6로 되었다고 한다.

다니구치 마코토(谷口誠)는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동아시아는 그에 맞는 지역통합을 지향해야 하며, 이는 EU보다 완만한 형태의 공동체 구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FTA를 비롯한 폭넓은 경제제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설립한 후, 최종적으로는 정치·안보보장면의 지역협력이 가미된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⁶⁾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된 화두였다. 2001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자 공식 제안했으며,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포럼을 설치하고자 제의했다고 한다.⁷⁾ 그 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문제는 역내 국들 간 중요한 외교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2005년 12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쟁이 확산되었다. 논쟁의 핵심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지리적 범주와 기존 ASEAN+3와의 관계 설정 문제였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과 일본 간의 잠재적 패권경쟁, 그리고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가

6) 다니구치 마코토 저, 김종걸, 김문정 역(2007), 『동아시아공동체』, 울력출판, p.91

7) 하영선 편,(2008), 앞의 책, pp.262-263.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

3. 일본 주요 연구자들의 논의-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에 의하면 최근 세계사의 두드러진 흐름은 지구화와 지역화로써 과학기술 및 자본은 국경과 대륙의 경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오고 간다. 한편 경제, 안보, 환경, 문화는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서 NAFTA, ASEAN 등 인접 국가 사이의 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후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결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커녕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고사하고, 군사적, 안보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국가 간 규모 차이가 심하고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와다 하루키는 이제는 동북아 국가들도 지역공동체 수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는 10년째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고, 학술회이나 신문과 잡지 기고 등을 통해 이를 발표해 왔다. 와다 하루키가 생각하는 동북아는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등 7개국과 타이완, 오키나와, 하와이, 사할린, 쿠릴열도 등 5개 섬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러시아는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큰 미국을 떼어놓고는 지역공동체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섬들의 연결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성과 영토 분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8) 조정원(2009), 앞의 논문, pp.483-48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때문이다.

동북아 공동의 집은 먼저 평화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환경, 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정치 및 안보 공동체를 수립한다는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의 당면 과제는 북한 핵 개발 문제 해결로서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 평화 비핵화 조약의 체결을 해법으로 제의한다. 둘째 단계는 원자력발전소, 대기 및 해양오염의 공동 대처, 동북아 개발은행, 에너지공동체, 자유무역지역 창설, 문화교류의 활성화 등이다. 마지막 단계는 정상회의 및 외무·국방장관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의 안전보장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중심성과 한국의 주도권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는 한국이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주요 국가들에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는 남북한이 서로 접근하고 혁신된 나라를 만들어 이웃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다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통일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한인으로서 도쿄대 교수인 강상중은 일본 국회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강상중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을 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고립된 일본이라는 딜레마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강상중의 구상은 한국과 일본이 핵심이 되어 중국 대륙과 대만, 나아가 러시아의 극동지역까지 펼쳐지는 공동체의 구상이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고 한반도 역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결코 남북통일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한국인의 역할이 중시된다고 강상중은 생각한다. 또한 제일 한국인의 문제는 나라를 초월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일한국인의 문제는 실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최대 딜레마는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시아에서 이반(離反)해 있다는 문제, 즉 미국과 밀착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의 공존과 통일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면 중국이 주한미군의 존속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오히려 북한을 완충지대로 하는 현상유지를 원하면서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영세중립화하고 이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네 강대국이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⁹⁾

Ⅲ. 동아시아 공동체 인식과 그 대안으로서 문화공동체

1.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 대한 주변인식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본의 지역공동체 구상은 일본의 대아시아주의에 입각하여 특수한 일본식 가치개념이 바탕이 된 제국주의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전전의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이 초반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반응이 좋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의도를 안 뒤에는 비난을 금치 못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비슷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인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시아 주변국가들에게 좋지 않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일본정부의 대일 불신감을 증대시키는 행위들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관심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의 공동체 담론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분야에서 공동체 구축 또는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광익에 의하면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적어도 문화적 변수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여, 이는 동아시아가 20세기 중반 이래로 냉전의 대결구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의 하나라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고 이야기하며,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통합의 수준도 통합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 오명석 외(2004), 앞의 책, pp.26-28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기술함.

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최근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온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기본 구상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불신과 갈등이 크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문화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민병원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문화적 상호 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문화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이 이러한 구상을 떠받치고 있다"¹¹⁾고 하는데 그의 주장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2. 대안으로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망

이처럼 동아시아의 통합과 공동체에 대한 담론에서 문화의 변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추세는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한 지역 연구는 여전히 절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여기서 문화는 지역학적 관점에서 비롯하는 관계적 문화연구로서, 역사나 사상사 그리고 한 국가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현대문화의 자장과 교류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학적 문화연구는 이미 유럽 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적 접근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일류 등의 동아시아 대중문화 개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 범세계적인 정보통신 혁명, 문화

10) 김광익(2004), 「동북아시아의 존재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법문사, pp.1-5 참조

11) 민병원(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 연구원, pp.364-365 참조

가 갖는 의미와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화교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 발전과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문화적인 교류의 증대 및 상호간 이해의 바탕으로서 문화적 공감대를 찾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넓은 의미의 한자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역사적 전통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유대관계는 오랜 기간 내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가능케 해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횡행하던 지배집단의 문화적 동화정책을 넘어서는 상호 존중의 생활세계를 의미한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추세 및 지정학적인 변화는 상호간에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교류 방안을 찾고 또 실행한다면 상호간에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교류의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 및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문화적 이해를 위한 바탕 및 노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유교문화 혹은 한자문화 역시 문화적 공감대의 바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발전과정이 서로 상이하게 진행되어 온 결과 공감대 형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고구려 역사의 해석문제에서 보듯이 또 일본 교과서 및 독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이 과거 역사해석에 대한 문제와 근대 역사의 경험에서 연유한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원활한 문화교류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현실적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요소가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과 교류, 공동체의 모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다분히 막연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또한 문화적 지역공동체 즉 문화공동체란 도대체 어떤 내용과 형태를 지닌 공동체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담론의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국가중심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이 아직까지 국민국가 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근대 패러다임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나 안보와 달리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존의 국경선 내부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세계화의 추세를 고려하면 문화담론이 국가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것이 사실이다. 국가주의 문화담론에서는 정치나 군사, 경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영역에서의 교류와 통합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적론을 내세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불기 시작한 한류열풍을 재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러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도가 국경을 넘는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제한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²⁾ 예를 들어 최근에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에서 보듯이 대중문화를 통한 상호 문화접촉은 문화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호 교류와 이해를 위하여 또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교류는 결국 오늘날 상당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간에 필요한 것이다.¹³⁾ 하지만 한류와 같은 문화교류의 추세를 산업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활용하려는 시각 즉 자국 중심의 문화담론이 역내의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타적, 전략적 관점에서 전개되어 나갈 때는 커다란 위험성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공유와 체험의 전통적인 문화흐름, 즉 타 문화권에 비하여 보다 보편적인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비롯한 일련의 문화담론들은 작금의 문제를 상당부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⁴⁾

12) 민병원(2008), 앞의 책, pp.361-368 참조

13) 정갑영(2004), 「동북아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정책」,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법문사. pp.238-239 참조

14) 박희영(2014), 앞의 논문, pp.278-281.

IV. 나가며-일본의 역할 가능성과 전망

현재 일본 아베정권의 극도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 국민들의 이해득실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며, 점차 동아시아의 상황을 극도의 불안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통한 과거 역사의 왜곡과 날조를 통한 역사인식의 부재와 과거 반성의 부재, 그리고 이것들이 잉태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차별주의의 팽배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특회의 의도적인 혐한 등을 불러일으키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미찰을 일으켜 왔던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문제와 독도 문제, 연해주 문제 등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영토분쟁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일본이 내세우고 주장하고자 하였던 동아시아 연대, 및 공동체 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킬 정도로 일본에 대한 정서적 반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동아시아의 현 상황이자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역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현주소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존과 상생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나가기 못하고 오히려 위기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러한 극도의 우경화 성향에 반발하여 비록 소수일지라도 소통과 공존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이러한 최근의 일본 내에서의 흐름에 반대하는 여론도 점차 증대되고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일본 내에서의 역내, 즉 동아시아 공동체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본을 경험적으로 기억하는 주변국들의 철저한 소통단절에 의하여 본고에서 고찰하였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실체 없는 이상에 그칠 수밖에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탈냉전기에 들어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역권내의 문화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적 담론에서 일본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지역학적 문화공동체 연구는 이미 유럽 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적 접근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법을 일본은 수정 보완해나가는 형태로 하여 향후 전개되어 나갈 그들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주장해야할 것이다. 이것만이 앞으로 그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담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역(2004), 「동북아시아의 존재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법문사.
- 김세일 외 7명(2014), 『동아시아-동북아-新동북아(1)』,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네오.
- 김세일, 김홍중(2013), 「신동북아 지역주의와 문화의 의미」, 『외국학연구』 제25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 김기석(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
- 권영설(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길」,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법문사.
- 민병원(2008), 「동아시아 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 연구원.
- 미야지마 히로시(2005), 「일본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현주소」, 역사비평 72호, 역사문제연구소.
- 박희영(2014), 「지역주의 문화담론의 확장 그 한계-한, 중, 일의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4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오명석 외(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통일연구원.
- 와다하루키, 이원덕 역(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 정갑영(2004), 「동북아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정책」,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법문사.
- 조정원(2009),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대동아공영권과 '동아시아·공동체'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하영선 편(2008), 「동아시아론의 역사」,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 연구원.
- 한상일(2005), 「동아시아 공동체론: 실체인가, 환상인가?」 동양정치사상사 제4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투고일 : 2014.12.29

❖ 심사완료일 : 2015.02.09

❖ 게재확정일 : 2015.02.09

Abstract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화담론의 가능성과 전망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을 중심으로-

박희영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장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연구는 각 국가의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 정치와 경제, 안보문제만이 주요한 테마로 인식되어 오는데 그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으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문화 네트워크 구축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일본이 내세우는 그들의 구상의 한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먼저 동아시아 문화담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간의 실질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Key Words :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화합, 상생, 문화, 한계성

Abstract

Possibilities of and Prospects for Cultural Discourse
in the East Asia Community

- Focusing on the East Asia Community Initiative in Japan -

Park, Hee-young

The 21st century East Asian community is unchanged from that of the last century—a chapter of endless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erefore, in East Asia community research, understanding of each country and communication are most important areas. In this atmosphere, discussions on cooperation in East Asia have been held in various aspects. But mainly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have been the ones recognized as major themes. To achieve true harmony and coexistence among those of the East Asia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ulture as the basis. Thus, East Asia community cultural networking is something that is needed more than ever.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debate on the East Asia community that is being raised in Japan from the past, looking back the footsteps leading to the present,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ir conception. Through this, in Japan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ast Asian Community First, This paper focused on East Asia culture discourse. and Between the East Asia Community, To realize a substantial cultural network was to explore the role and potential of Japan.

Key Words : East Asia Community, Harmony, Coexistence, Culture, Limitations